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수기 공모

유승부

멀리서 빈다

-나태주-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1년 전 제가 처음으로 부산에서 인천으로 올라와 방황하고 갈팡질팡할 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도 참석하지 않아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 나에게 웃으며 인사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때, 혼자 기숙사에 남아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저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었던 시입니다.

홀로 타지생활을 시작하면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다가 많은 것을 혼자 해야 했던 신입생 시절, 저는 새벽녘에 기숙사 한켠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평평 운 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피곤한 어머니를 깨울까, 항상 10시만 되어도 연락을 망설이곤 했던 제가, 그 날은 너무나도 그리운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싶어 그 늦은 밤 전화를 하였습니다. 웬일이니, 우냐, 많이 힘드니, 기차표 사줄 테니 내려오라고 다독이시는 그 따뜻한 보살핌의 말들이 저를 더 그럽게 만들고, 그 날 밤 저는 왜인지 모르게 보이지 않던 눈물을 왕창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 이제 그만 끊어야겠다고 하고 안녕히 주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감정을 바로 잡는데, 주머니에서 떨어지는 진동소리. 이 시는 어머니가 그 날 밤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 그 늦은 밤 피곤한 눈을 부릅뜨고, 행여나 오타가 나진 않을까, 새하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저에게 한자 한자 보내주신 그런 고마운 시입니다. 휴대폰 바탕화면으로까지 지정해서 참 많이 보

왔던 시인데, 한동안 잊고 살다가 저번 학기, 학교 도서관에 있는 시집을 보다가 발견했습니다. 그 때는 또, 친하게 지내다 본국으로 떠나간 교환학생 친구들, 먼저 군대로 가버린 어린 시절부터 날 참 잘 챙겨줬던 찬우, 오랫동안 보지 못해 이제는 얼굴도 가물가물한 보고 싶은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까지 하나 둘 생각나더군요. 이제는 또 한참 고생하고 있을 친형이 생각납니다.

저는 영화도 참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는데, 옛날부터 시는 별로 좋아한 적이 없었습니다. 원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왜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는지도 잘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은 그 무엇보다도 좋은 시 한편이 좋습니다. 영화나 소설과는 다르게, 짧지만 그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하지만 요즈음 사람들은 시를 많이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석학술정보관의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고 있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교내 도서관 홈페이지에 베스트셀러를 업데이트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달에 가장 많이 읽힌 책들을 공지하고, 학생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인데, 하다가 재미난 책이 보여 대출하러 가거나, 도중에 체크를 해보면 소설이나 자기계발서, 토익이나 자격증 책들은 보통 다 대출상태이고 예약도 몇 명이나 밀려 있는데 비해, 운문 책들은 희망자도 몇 없어 장서 수도 적고, 대출 해가는 사람도 몇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베스트셀러에 올라온 책들도 도서관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왜 이 시인의 작품이 이 많은 책들 사이에 한권도 없을까’ 라는 약간은 아쉬운 의문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저는 친구들에게 좋은 시도 많이 보여주고, 아날로그틱한 편지지에 적힌 조그마한 글씨로 시를 담아 멀리 사는 친구들에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반응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시를 읽은 적이 오래되었는데, 고맙다고 말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기분도 좋고 마음도 뿌듯합니다.

지금은 취업이다, 자기계발이다 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인문학과 자격증, 어학점수에 많은 비중을 두고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때로는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자신을 잃어버릴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상황에서 힘들고 외로운 적도 많았습니다. 서로가 경쟁자인 삭막한 현실에서, 재미있는 소설한 권 읽은 시간이 없는 이때, 때로는 자신을 위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위해, 언제나 우리를 지켜봐 주실 부모님과 동생, 형, 누나, 언니를 위해, 짧은 시 한편 정도 읽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 시간 동안은 우리 다 같이 걱정, 불만 다 잊고 편안히 눈감고 따뜻한 그 감정 다시 느껴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